

남남이 된 소녀시대-제시카, 알곳은 8월 빅뱅

8월5일 데뷔 10주년 '전쟁의 서막'

소시 4일 6집 '홀리데이 나이트' 발표
이틀날엔 올림픽홀서 10주년 팬미팅
제시카도 9일 세번째 미니앨범 공개
13일엔 10년 활동 추억하는 콘서트



5일 소녀시대가 데뷔 10주년을 맞는다. 최근 미국 빌보드가 '10년간 최고의 케이팝 걸 그룹' 1위에 선정할 정도로 이들은 강력한 스타파워를 지니고 있다. 3년 전 그룹에서 탈퇴한 제시카에게도 특별한 날이다. 2014년부터는 이들 각각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음반을 내놓으며 '필연'의 경쟁을 하게 됐다. 왼쪽 사진부터 제시카, 소녀시대. 사진제공 | 코리얼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

'알곳거나 혹은 필연이거나!'
5일 그룹 소녀시대에게는 특별한 날이다. 바로 데뷔 10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쫓지 않은 기간 여전히 인기 정상의 걸그룹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 그만큼 이들의 활동 10년은 팬들과 가요계에도 커다란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이런 의미를 되새길 또 한 사람, 가수 제시카다. 그 역시 5일 데뷔 10주년을 맞는다. 한때 소녀시대의 멤버이자 보컬이었던 그는 2014년 팀에서 탈퇴하며 멤버들과 이별했다. 그런 그에게도 지나온 시간은 가볍지 않다.
2007년 8월5일 그룹의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소녀시대와 제시카가 '알곳은 운명'에 놓였다. 가수로서 생일이 갈수록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기도 하다.

● '필연'의 경쟁 아닌 경쟁

그룹 소녀시대는 데뷔 기념일 하루 전날인 4일 10주년을 기념하는 음반이자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를 선보인다.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앨범을 공개하는 이들은 기념일 당일인 5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0주년 기념 팬미팅 'GIRLS' GENERATION 10th Anniversary-Holiday to Remember(걸스 10th 애니버서리-홀리데이 투 리멤버)를 펼친다.
제시카 역시 9일 세 번째 미니앨범 '마이 디케이드(My Decade)'를 내놓는다. 앨범 타이

틀을 아예 자신의 10년 활동을 기념하고 정리하며 추억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어 13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콘서트 'Jessica On Cloud Nine 10th Anniversary Live In Seoul(제시카 온 클라우드 나인 10th 애니버서리 라이브 인 서울)'을 연다.
이에 따라 소녀시대와 제시카는 같은 시기,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가수로서 세상에 함께 태어났지만 이제 각각의 길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팬심을 향한 대결을 펼치는 '알곳은 운명'에 맞고 있는 셈이다.

● 함께 지나온 길, 앞으로 나아갈 길

소녀시대와 제시카는 2007년 데뷔 이후 7년 여 동고동락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제시카가 돌연 팀 탈퇴를 선언하면서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후 소녀시대와 제시카를 두고 비교 자체를 꺼리는 팬들이 많지만, 데뷔하기 전부터 정상을 밟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함께 해온 이들이기에 데뷔 10주년을 맞아 나란히 컴백하는 것에 대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동지에서 경쟁자로 새로운 구도가 형성됐어도 양측을 응원하는 팬

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가는 길은 달라도 소녀시대와 제시카는 여전히 '아시아의 별'이다. 하나의 영역에서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자기계발과 도전으로 솔로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소녀시대의 유리, 윤아, 수영, 서현은 연기자로 스타성을 인정받았고, 태연, 써니, 티파니, 효연 등은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제시카 역시 탈퇴 후 솔로 가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 인생 2막을 열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최종훈-손연재·유이-강남 커플 결별

공개 연애에 대한 부담이 컸던 탓일까. FT아일랜드의 리더 최종훈(27)과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유이(29)와 가수 강남(30)이 각각 연애 4개월·3개월 만에 결별했다. 1일 최종훈은 일본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상대가 많은 부담을 느꼈다. 남녀 사이에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한층 더 성숙해지겠다"며 "민어주시고 응원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슬프지도 않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남의 소속사 측은 결별 이유에 대해 "각자 바빠진 활동과 스케줄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원해져 헤어졌다. 동료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며 "그 외의 내용은 개인적 사생활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7월 중순 연인 사이를 인정했다. 당시 "연인이 아니고, 친한 동료"라며 관계를 부인하다가 자신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자 순순히 인정해 아쉬움을 남겼다.

장동건, 6일 다저스전 NY 시티필드서 시구



장동건

배우 장동건이 미국 메이저 리그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 1일 소속사에 따르면 장동건은 6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뉴욕 메츠와 LA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한다. 한국 연예인이 시티필드 야구장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코리안 데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구를 통해 장동건은 평창 동계올림픽 피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알리는 임무를 맡는다. 경기 시작 전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등장하고, LA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국내는 MBC, 미국 전역에는 스포츠채널 ESPN이 생중계한다.

연기자 이준, 10월24일 육군 현역 입대

연기자 이준이 10월24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이준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영 통지서를 공개하며 입대 사실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이날 "이준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 촬영 중인 KBS 2TV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촬영에 최선을 다한 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준은 2009년 그룹 엠블랙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연기자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이휘재 아버지에 악플 단 누리꾼들 입건

방송인 이휘재의 아버지에게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에 이휘재의 아버지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남성 4명을 입건했다. 앞서 이휘재는 차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한 뒤 일부 악플러들의 인신공격성 댓글에 시달려왔다.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본인에 대한 악플도 아니고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갈수록 심해져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절대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연인' 배우 잔 모로 별세

프랑스 배우 잔 모로가 1일(한국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잔 모로는 이날 파리의 자택에서 숨졌다. 잔 모로는 1949년 영화 '마지막 연인'으로 데뷔한 후 칸, 제네바 등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생전 '영원한 프랑스의 연인' '누벨바그의 여신' 등으로 불리며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예술원 정회원으로도 추대됐다. 2001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으로 부산을 찾기도 했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잘못쓰면 독 별들의 SNS

비스트 출신 장현승 1년 지나 사과글
"솔로앨범 홍보전력 아니냐" 거센 비난

이쯤 되면 팬들과 '소통의 창구'가 아닌 '논란의 근원지'라 할 만하다.
스타들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 잇따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SNS는 이들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최근 오해를 부를 만한 글과 사진으로 구설에 휘말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그동안 전혀 소통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용기 내어" 쓴 글로 오히려 비난받기 위는 꼴이 되기도 한다.
가수 설리, 가인, 구하라, 박우천에 이어 이번엔 장현승이 SNS에 글을 올렸다. 그 대상이 되고 말았다. 비스트 출신 장현승은 1일 새벽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려 팀에서 탈퇴하면서 팬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 활동할 당시 무성의했던 행동 등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다. 지난해 4월 그룹에서 이탈한 후 처음으로 심정을 고백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지만, 1년 넘게 침묵을 지켜오다 내놓은 뉘는 사과에 팬들마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부는 장현승의 '뜨거운 사과'를 최근 발표한 솔로 앨범과 연관지어 "홍보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디지털 싱글 '홀'을 발표했다. 탈퇴 이후 처음 선보인 신곡이다. 팬들은 "과거엔 SNS로 사과하는 것을 이해 못 한다고 하더니 왜 이제서야" "사과도 다 때가 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현승처럼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과거 논란에 휩싸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재기 의사를 밝힌 박우천도 SNS가 문제였다.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를 통해 '한밤 취중고백'을 했지만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SNS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소통의 창구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에 앞서서는 구하라, 설리, 가인 등이 SNS를 통해 각종 논란을 일으켰고, 설리는 심지어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얻기까지 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연예인들의 일상에 일일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이를 관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됐다"며 "말 한 마디에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영화의 탄생 이끈 공블리·마블리

공효진 다큐 '프로젝트 패기' 모터브 제공
마동석 영화 '챔피언' 시나리오 작업 동참

재능 많은 배우가 영화 제작을 이끈다.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과 소통하면서 비슷한 애정을 얻은 '공블리' 공효진과 '마블리' 마동석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영화 기획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배우 공효진은 이달 개봉하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젝트 패기'(제작 알투픽처스)에 모티프를 제공하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마동석 역시 제작을 추진 중인 영화 '챔피언'(감독 김용환·제작 영화사 코코나)의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 참여해 역량을 뽐냈다. 남다른 감각과 추진력으로 영화 제작에 기여한 실력자들이다.
공효진이 출연료도 받지 않고 참여한 '프로젝트 패기'는 2012년 하정우가 이끈 영화 '577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 하정우는 한 시상식에서 엄격결에 내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공효진 등 동료들과 국토대장정에 나섰고, 그 과정을 영화 '577프로젝트'에 담았다.
공효진은 당시 영화를 연출한 이근우 감독이 또 한 번 가상의 설정으로 현실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기획 소식을 접하고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내줬다. 영화는 무명의 감독이 톱스타 공효진을 캐스팅하기 위해 벌이는 황당한 작전을 그리고 있다. 이근우 감독의 자전적인 상황을 그대로 녹여 넣은 이야기로,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한 신선한



▲마동석

▲공효진

기획이다.
공효진은 영화에서 실명은 물론 실제 상황을 그대로 이어간다. 제작 과정에서 감독과 여러 아이디어를 나누며 영화 제작을 도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프로젝트 패기' 제작 관계자는 1일 "'공블리 캐스팅 프로젝트'라고 설명될 영화는 독특한 장르를 통해 새로움을 전하고자 하는 감독의 욕심으로 제작됐다"며 "소위 말하는 '병맛 코미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마동석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챔피언'은 그동안 영화 시나리오 기획과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마동석이 제작에 일정 부분 기여한 작품이다.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 오랫동안 여러 의견을 보냈다. 영화는 팔씨름을 소재로 하는 몽클한 휴먼 드라마 장르다.
마동석은 '챔피언' 출연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영화 '골렘'을 촬영 중인 그는 하반기 영화 '신과 함께' 개봉을 앞둔 가운데 '챔피언' 참여도 조율하는 등 분주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ll1024@donga.com

'효리남편' 이상순 언제 DJ 됐대?

명품브랜드 행사 디제잉 SNS서 화제
제주 음악축제에 'DJ 이상순' 출사표



이상순

틀러코스터 출신 가수 이상순의 '변신'이다. 이상순이 현재 본업인 가수가 아닌 DJ로 팬들과 만나고 있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DJ로서 재능을 과시하며 팬들의 시선을 모아가는 중이다.
그동안 DJ로 활동한다는 소식이 가끔 알려져 팬들의 관심을 끈 이상순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해의 명품 브랜드 행사 무대에서 디제잉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돼 화제가 올랐다. 이를 본 팬들은 "이상순의 재발견"이라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나아가 이달 열리는 각종 음악 페스티벌에도 'DJ 이상순'(DJ Leesangsoon)으로 이름을 올렸다.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 팍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매

직비치 제주 2017' 무대에 나선다. 이상순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바가지 바이패셔널, 코난, 디제이 바리오니스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자웅을 겨룬다. 또 12일 제주 이호해수욕장에서 무대를 꾸미는 '2017 코리아 풀타임 페스티벌'에도 참여한다. 그가 가수 이효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주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순은 이효리와 결혼 후 '이효리의 남편'으로 불리며 최근 JTBC '효리네 민박집'을 통해 '국민 남편'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음악 랭킹

자료:멜론 7월 24일~7월 30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비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
2	빨간 맛	Red Velvet
3	Artist	지코
4	널 너무 모르고	헤이즈
5	마지막처럼	BLACKPINK
6	Ko Ko Bop	EXO
7	남이 될 수 있을까	불발(이승기,스무살)
8	나모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
9	매일 듣는 노래	황지열
10	Shape of You	Ed Sheeran